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3.(금) 16시 30분 배포 2026. 11. 13.(금) 06:00

연말 김치·배추·무 수출 확대 위해… 민·관 협력 총력전 나서

- 농식품부, 김치업계 및 배추·무 통합조직 등과 긴급 간담회 개최
- 정부 비축 물량 할인 공급 및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업계의 적극적 동참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풍작으로 공급이 늘어난 배추·무 등 우리 농산물의 국내 수급을 안정시키고 소비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11월 13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치업계 및 배추·무 수출통합조직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 및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김치, 배추, 무의 수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고자 긴급히 추진되었다.

이날 농식품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연말 수출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민·관의 총력 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김치 제조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덜고 신규 수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비축 배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김치 수출기업의 연말 추가 수출 물량과 원료 수요를 바탕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적극 연계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비축 배추를 활용하는 김치 수출기업과 신선 배추·무 수출 통합조직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연말 수출 활동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과 판촉·마케팅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 의지가 있으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수출 여력이 있는 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신선 배추의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 길을 적극 넓혀갈 계획이다. 사전 등록 정보 정비 및 변경 지원 등을 통해 그동안 수출 기회가 제한되었던 농가들도 원활하게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우리 농가들이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비상 상황인 만큼, 김치 업계와 생산자 단체 등 민간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와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배추와 무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수출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비축 물량 공급부터 마케팅 지원, 수출 기반 강화까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말 김치·배추·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우리 농산물의 해외 진출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공동>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